

##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의 방향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 나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의 기초로서 지금까지 행해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학 연구를 종합적으로 개관하고 통일과 관련된 보다 체계적인 심리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심리학회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총 56건의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현황과 그에 따른 심리학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학 연구를 ‘남한 적응(문화적응, 심리적 적응 및 정신건강, 경제적 적응)’, ‘개인적 특성’, ‘관계적 특성’,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상호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용 척도 개발 및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으로 구분한 후, 이를 비판적으로 개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통일 한국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2014-미래기초과학핵심리더양성사업/글로벌박사양성사업).

†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2649, E-mail: slee1@ewha.ac.kr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북한은 3대 세습독재체제인 김정은 정권 하에 유지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본격적인 통일·대북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통일 준비 필요성과 그 역할이 논의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서 심리학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독일 통일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통일교육 모델을 제안하였던 채정민과 김종남(2008)은 통일 이후 다양한 사회문제가 국민들의 정신건강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통일 문제의 심리적 귀결 현상’을 보고한 바 있다. 독립적인 국가체제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하에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훼손된 지 오래인 한국의 경우, 국가에 의한 통일이 선행된다 할지라도 남북 주민 간의 심리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혼란과 통일비용의 증대가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심리학자의 역할 중 하나는 통일 이후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개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양적·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통일이 남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여 이에 대처하는 작업은 통일 이전과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학적 영역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개입하는 과정은 심리학 연구와 실무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 준비를 위한 심리학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sup>1)</sup>을 대

상으로 행해진 심리학 연구를 중점적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회도서관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로 소장된 자료 중 ‘북한이탈, 탈북, 새터민, 북한 귀순’ 등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1969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행해진 전체 논문은 총 693건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는 심리학적 연구에 초점을 두기 위해 분석 범위를 한국심리학회지로 한정하였으며, 그 결과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총 56건(전체 집계된 연구의 약 8%)의 연구가 본 연구의 분석범위에 해당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범위인 총 56건의 연구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한 연구 47건,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나 편견, 고정관념을 살펴본 연구 6건, 독일 통일연구를 개관하여 국내 통일 모델을 제안한 연구 2건, 재중 탈북자 대상 연구 1건이 있다. 이 56건의 연구 외에도 한국심리학회는 1993년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이라는 대외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연차 학술발표 및 대외 심포지움을 진행해온 적 있으나 초록만 검색되는 관계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전반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현황과 그에 따른 심리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학 연구를 ‘남한 적응(문화적응, 심리적 적응 및 정신건강, 경제적 적응)’, ‘개인적 특성’, ‘관계적 특성’, ‘남한

1) 북한이탈주민(北韓離脫住民)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

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상호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용 척도 개발 및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으로 구분한 후, 이를 비판적으로 개관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 통일 준비를 위한 연구의 초점: 북한이탈주민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5월말 입국자 기준 28,054명이며(통일부, 2015), 국내 입국 증가추세로 본다면 2016년에는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북한 주민을 이해하기 위한 간접적이지만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한국심리학회지에 게재된 총 56건의 연구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북한주민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자로서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주민과는 다르게 '탈북, 제3국 체류, 남한 사회 정착'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했을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중 재북 출신지역이 국경지역(함경북도, 양강도)인 경우가 전체의 약 84%, 재북 직업이 노동자 및 무직(가족부양)인 경우가 전체의 약 86%, 여성이 약 70%, 20-40대가 약 74%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2014년 12월말 입국자 기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결과를 북한 주민 전체에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준비를 위한 심리

학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성공적 정착이 통일 한국에 주는 함의 때문일 것이다.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로,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이후 우리 사회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자 역할과 북한 주민들의 적응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 준비의 인적 자원으로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남한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북한에 거주하는 잔류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의 통일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먼저 온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이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갈등의 해결과정은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 기여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갖는 일반화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는 결정적이다.

###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에 따른 심리학 연구 동향

1990년 동서독 통일의 영향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면서 한국심리학회는 1993년에 통일과 심리적 화합에 대한 대외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월남귀순자(1962)', '월남귀순용사(1978)', '귀순북한동포(1993)' 등으로 명명하면서 이데올로기 문제로 자유를 찾아서 월남한 귀순용사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1994년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고, 북한이탈주민을 생계지원을 해야 하는 보호대상자로 인식하면서 주무부처도 보건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되었다. 또한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을 통일의 주역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주무부처가 통일부로 이전되었다.

본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가 한국심리학회에 게재된 것은 국내 입국자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이다(표 1 참조). 이 시기에는 남한주민이 북한,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나 편견, 고정관념에 초점을 맞춘 연구만 게재되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이 직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이후부터이다. 특히, 2002년 이후부터 남성에 비해 여성 입국자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북한이탈 여성의 취약성(조영아, 전우택, 2005)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고, 현재까지 한국심리학회에 게재된 북한이탈 여성 대상 연구는 총 15건(약 27%)에 이른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부적응과 정신병리에 대한 관심의 증가되면서 통일부 하나원<sup>2)</sup> 내 공중보건인과 전문상담사의 채용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2007년부터 2008년 한 해 사이에 하나원 정신과 진료비율이 약 20배 급증(통일부 하나의원, 2013)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한국심리학회에 게재된 정신병리 연구는 총 12건(전체 연구의 약

표 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및 한국심리학회지 게재 빈도수

연 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 (여성비율)	학회지 빈도수
~ 1998	947 (12%)	0
1999		2
2000	1,043 (46%)	3
2001		0
2002	1,142 (55%)	2
2003	1,285 (63%)	1
2004	1,898 (67%)	7
2005	1,384 (69%)	5
2006	2,028 (75%)	2
2007	2,554 (78%)	3
2008	2,803 (78%)	3
2009	2,914 (77%)	6
2010	2,402 (75%)	11
2011	2,706 (70%)	3
2012	1,502 (72%)	4
2013	1,514 (76%)	2
2014	1,397 (78%)	2
총계	27,519 명	56 건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21%)으로, 과거에는 주로 우울 및 전반적인 심리증상이 연구되었다면, 최근에는 PTSD와 복합 PTSD (Complex PTSD)에 대한 연구(김희경, 2012a; 장문선, 손의정, 2014)가 이루어졌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과 병리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었던 과거 연구와 달리, 최근에는 새로운 주제의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연성(손영미, 강숙정, 박정열, 2014),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녀양

2) 통일부 하나원은 국내보호가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로 들어가기 전에 약 3개월 동안 초기 사회적응교육과 초기 정착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통일부, 2014).

육(김희경, 2012b)과 어머니-자녀재결합 경험(조영아, 2012) 등이 그 예이다.

##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 문화적응

문화심리학에서는 인종 및 민족정체성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응 모델이 제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Gupta & Leong, 2013), 한국 심리학회에 게재된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acculturation) 연구는 모두 Berry(1997, 2002)의 문화적응 모델만이 활용되어 왔다. Berry의 이론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유형은 북한문화정체감과 남한문화정체감 점수의 고저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북한의 고유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남한 사회와 충분히 접촉하는 ‘통합(integration)’ 유형, 둘째, 북한의 고유 전통과 정체성을 버리고 남한 사회에 완전히 흡수되는 ‘동화(assimilation)’ 유형, 셋째, 북한 고유 집단의 정체성만 유지하면서 남한 사회 문화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분리(separation)’ 유형, 마지막으로, 북한 뿐 아니라 남한 집단 및 문화와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주변화(marginalization)’ 유형이다(Berry, 2002). 기존 문화적응 이론에서는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착 문화에 유능감과 안정감을 경험하여 두 문화를 통합하는 유형이 가장 적응적이라고 설명해왔다(Berry, 1997).

그러나 최근 문화적응 연구들은 이주자의 문화적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류사회의 사람들이 이주자에게 기대하는 문화적응

전략(a societal acculturation expectations)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Major & O'Brien, 2005; Pfafferoth & Brown, 2006). 이는 이주자의 문화적응 전략과 주류사회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문화적응 전략 간 차이가 클수록 이주자의 적응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Kunst & Samp, 2013).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과 중국 한족 유학생의 문화적응을 비교한 결과(김현옥, 추상엽, 임성문, 2014), 한국과 다른 중국 문화를 지닌 중국 한족 유학생은 통합 유형이 가장 높은 적응수준을, 주변화 유형이 가장 낮은 적응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문화와 비교적 유사한 문화를 지닌 중국 조선족 유학생은 동화 유형이 가장 높은 적응수준을, 통합 유형이 가장 낮은 적응수준을 보여 상이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는 한국 문화와 조선족 문화의 유사성 뿐 아니라, 조선족이 한국인 보다 열등하다는 한국사회의 편견이나 차별을 반영해주는 결과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착사회 사람들이 이주자 집단에 대한 낙인(stigma)을 지니고 가치를 평가절하 할 때 이주자 집단은 분리나 동화 유형의 문화적응 전략을 더욱 선호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Bourhis & Dayan, 2004; Montreuil & Bourhis, 2001; Safdar, Dupuis, Lewis, El-Geledi, & Bourhis, 2008)을 종합해 봤을 때, 오랜 분단시기 동안 같은 민족이지만 상호 적대적이었던 남북관계와 분위기 속에서 남한사회에 이주하여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적인 문화적응 유형은 무엇일까? 채정민과 이종한(2004b)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분리, 동화, 통합, 주변화 유형 순으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 유형 순으로 높았다. 즉, 남한문화를 수용

하지 않고 북한문화만 고수하는 분리 유형과, 북한 문화를 버리고 남한문화를 수용한 동화 유형이 가장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였으며, 이러한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수준도 높았다.

이를 최근 문화적응 연구 결과(Bourhis & Dayan, 2004; Montreuil & Bourhis, 2001; Safdar, Dupuis, Lewis, El-Geledi, & Bourhis, 2008)와 연결 지어 본다면,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 뿐 아니라,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니고 있는 문화적응 전략에 대한 기대가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분리나 동화 유형’의 문화적응 전략을 선호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안된다. 더불어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의 기대와 일치하는 ‘분리 유형’이나 ‘동화 유형’의 문화적응 전략을 사용할 경우, 이들의 적응수준이 증가할 경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관계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기대하는 문화적응 전략 뿐 아니라, 이를 북한이탈주민이 어떻게 지각하며 인식하는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2004)는 입국초기 하나원 교육시기인 4개월 이하의 보호기간에는 ‘통합과 동화 유형’, 보호기간이 끝난 후 혼자 살기 시작한 후 1년 동안은 ‘분리 유형’,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주변화 유형’, 2년 이후에는 ‘통합 유형’이 증가하여, 남한 문화적응에 있어서 북한이탈 청소년이 시간 경과에 따른 U형의 문화적응 변화를 보일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횡단적인 거주기간별 차이에 의한 결과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거주기간에 따른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 변화 양상이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의 변화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청소년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 변화 양상도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

### 우울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 및 정신건강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우울이다. 한국심리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를 종합해봤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취약군은 약 10.6%~54.7%로 추정되는데, 우울 취약군 비율의 차이가 큰 폭으로 벌어지는 이유는 연구마다 다양한 검사 도구와 서로 다른 절단점(cur-off)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법만 수행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의 방향으로 왜곡 반응 할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김종남, 최윤경, 채정민, 2008; 채정민, 한성열, 2003),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 연구에서 대부분 자기보고식 질문지법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김종남 등(2008)의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측정한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인 우울감은 남한주민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투사적인 검사인 로샤(Rorschach)<sup>3)</sup>로 측

3) 로샤 검사는 국내 규준이 마련되지 않아 외국의 규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즉, 사회문화적 특징에 따라 로샤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최윤경, 김종남, 채

정한 우울감의 경우에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로사 검사가 자기보고식 검사에 비해 안면타당도가 낮아 반응 왜곡 및 방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보고식 질문지법만 수행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긍정 왜곡 경향성을 보일 수 있음을 제안한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이득에 따라 왜곡의 방향이 긍정이나 부정 왜곡 등으로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추후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지표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법 이외의 다양한 방식이 함께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심리학회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주민 대상 우울 연구들은 성차와 관련해서 비밀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몇몇 연구에서 성차와 남한 거주기간 간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차와 거주기간을 모두 고려한 종단연구에서(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남한 사회 정착 초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우울하였으나, 정착 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우울에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입국 초기인 하나원 교육생 집단과 남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우울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김희경, 신현균, 2010), 여성은 거주 상태와 무관하게 우울감이 모두 높았으나 남성은 하나원 집단보다 지역사회 거주 집단의 우울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남한사회 거주기간이 7년 이상 된 경우로 연구대상을 한정 한 경우에는 남성의 우울감 증가로 인해 성차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어(조영아, 김연희, 정민, 2009).

유시은, 2009), 여성에 비해 남성의 우울 수준이 남한 거주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우울의 성차와 거주기간에 따른 상호작용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욱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을 높게 지닌 측면 특히,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북한이탈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욱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 결과(정진경, 2002)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남존여비 사상에 익숙한 북한이탈 남성은 남한사회나 가정 내에서 남성이라는 성역할에 있어서 지위 하락과 경제적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여성에 비해 높게 경험하여 우울과 같은 정신병리가 증가될 수 있다. 게다가 정착 초기에 비해 정착 이후에 북한이탈 남성의 음주문제가 유의미하게 증가된 측면(김희경, 신현균, 2010)도 이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남성의 정착 전후 심리적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 경향성 및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축적은 북한이탈 남성에게 특화된 근거기반(evidence-based) 개입으로 연결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감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즉, 20대에 비해 30, 40, 50대의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김희경, 신현균, 2010; 조영아 등, 2005).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거주경험에 따른 우울 수준의 차이가 없었으나, 30대와 40대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거주경험이 없는 하나원 교육생 집단에 비해 지역사회 거주자 집단의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 연령과 거주기간에 따른 상호작용을 보였다(김희경, 신현균, 2010).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 남한사회 정착 초기인 하나원 교육생 집단의 우울예측요인은 남한사회 이주 전 외상경험과 만성질환, 북한에서의 낮은 학력 수준 등이 우울의 정적 예측요인이었으나(최빛내, 김희경, 2011; 조영아 등, 2005; 조영아 등, 2009), 지역사회 거주 집단의 경우는 이주 전 외상경험 보다는 남한사회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욱 부정적인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조영아 등, 2005). 게다가 남한에서 교육경험이나 사회적 지지가 없는 경우, 북한에 잔여가족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차이도 지역사회 거주 집단의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므로(조영아 등, 2005; 조영아 등, 2009; 조영아, 김연희, 2010), 추후 심리적 적응 및 정신건강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령, 성별 뿐 아니라 북한과 남한에서의 사회인구학적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외상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 및 정신건강 연구에서 우울 다음으로 많이 연구된 주제는 외상(trauma)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연구는 주로 북한이나 제3국에서의 ‘외상사건’이 우울이나 전반적인 심리증상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연구된 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거주 및 탈북 과정에서 다양한 외상사건을 경험하는데, 외상사건을 하나 이상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은 81.4% (김희경, 2012a)에 이른다. 외상 사건별로 빈도를 구분해보면, 타인의 죽음(36.2%), 강제 감금(32.6%), 심각한 사건 사고(31.1%), 공안 체포 및 강제 복송(30.5%) 등의 빈도순이며, 성폭행

비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외상사건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외상사건 경험 비율이 더욱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상 연구는 북한이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북한이탈 남성의 외상 사건 경험과 그에 따른 결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PTSD 유병률과 관련해서, DSM-IV 진단기준에 의해 PTSD로 진단된 북한이탈 여성은 각각 2.5%(김희경, 전진용, 2010), 6.3%(조영아, 김연희, 2010)이다. DSM-IV에 의한 PTSD가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외상 경험 및 증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희경(2012a)은 PTSD를 단순 PTSD(simple PTSD)와 대인 간에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외상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 PTSD(complex PTSD)로 구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PTSD 유병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단순 PTSD는 14.6%, 복합 PTSD는 11.3%의 유병률을 보였고, 단순 PTSD와 복합 PTSD의 이중진단은 26.2%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자기보고식 척도만을 활용하여 단순 PTSD와 복합 PTSD의 유병률을 살펴봤기 때문에 진단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외상사건의 유형별로 결과를 구분했을 때(김희경, 2012a), 대인외상과 질병외상이 보다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야기 시켰다. 즉, 대인외상을 경험한 경우 비임상 집단으로 분류될 가능성보다 복합 PTSD로 진단될 가능성이 2.11배 증가되었고, 대인 외상과 질병 외상을 모두 경험한 경우 단순 PTSD와 복합 PTSD의 이중 진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각각 2.39배와 2.85배 증가되었다. 그러나 북한 거주 또는 탈북 과정에서의 외상 사건 경험을 한 사람이 모두 PTSD를 보이진 않으므로, 외상 경험 비임상 집단의 탄력성(resilience)과 보호요인



(protect factor)을 탐색해봐야 할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나 외상에 의한 발달과 같은 긍정심리적인 연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의 단순 PTSD 증상은 탈북 이후 경과 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반면, 복합 PTSD 증상은 탈북 직후에 상승한 이후 감소하다가 남한 입국 및 문화 적응기에 다시 정점을 이루는 양상을 보였으며, 복합 PTSD 하위유형 중 정서적 불안정성과 신체화 증상이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장문선, 손의정, 2014). 그러나 이는 탈북 이후 기간에 따른 변화를 횡단적인 집단비교 방식을 통해 구분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탈북 이후 경과기간에 따른 단순 및 복합 PTSD 증상의 변화와 만성적인 특성을 재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 기다: 불안, 신체화 증상

한국심리학회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 및 정신건강 연구에서 불안과 신체화 증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불안 유병률이나 취약군 비율은 지금까지 보고된 바 없다.

첫째로, 북한이탈주민의 불안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불안으로 진단받은 북한이탈주민의 MMPI-2 프로파일은 통상적인 불안장애가 나타내는 특징과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피해의식이나 의심과 같은 편집증적 경향과 친밀한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김희경, 전진용, 2010). 게다가 북한이탈주민의 성격병리(정신증, 신경증, 내향성)는 불안을 31.4%나 설명하기 때문에(최빛내, 김희경, 2011), 추후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불안 증상과 성격 적 특징에 따른 대인관계 특성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며, 불안과 성격병리의 공유되는 특성이나 공존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이탈주민의 신체화 증상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신체화 장애로 진단된 북한이탈 여성의 MMPI-2 프로파일은 우울군의 프로파일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김희경, 전진용, 2010). 북한 사회는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할 뿐 아니라 의료 환경이 부족하고 정신질환의 낙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했던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여 신체화 증상의 간접적 형태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한 정착과 관련해서 지역사회 거주 집단은 입국초기인 하나원 교육 집단에 비해 높은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였는데(김희경, 신현균, 2010), 이러한 결과는 남한사회 정착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부정적 감정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높게 경험할 가능성을 제안한다. 더욱이 하나원 교육생 북한이탈 여성 중 가족이나 자녀와 동반 입국한 여성은 단독으로 입국한 여성에 비해 신체화 증상을 높게 호소한 측면(김희경, 2010a)은 북한이탈 여성이 남한사회에 대한 정착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가족 부양 및 자녀 양육의 부담이 증가할수록 신체화 증상을 높게 경험하는 측면을 제안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 억압 경향성, 신체화 증상 등의 직접적 관련성 등이 구체적으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 경제적 적응

이주자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제적인 적응

(economic adaptation)은 새로운 문화에서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되며, 직무 만족감이나 직무 효과성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는 것 등이 포함된다(Aycan & Berry, 1996).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거나 자립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부적응은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탈북 동기가 북한에서의 심각한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실제로 인생에 있어서 돈이 중요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북한이탈주민의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가치관’은 남한사회에서의 소외감을 증가시켰으며(이재창, 김영만, 2005),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들의 우울을 증가시켰다(채정민, 김종남, 2004).

지금까지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경제적 부적응의 원인은 진로장벽(career barrier)이 연구되어 왔다. 남한 지역사회 거주 경험이 없는 입국초기 하나원 교육생 북한이탈 여성과 직업 교육생 남한 여성의 진로장벽을 비교한 결과(전연숙, 강혜영, 2009), 북한이탈 여성은 남한 여성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어려움이 높았고 진로결정 수준이 낮았다. 반면, 북한이탈 여성은 남한 여성에 비해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보고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북한이탈 여성의 연구결과는 기존 다른 대상의 연구결과와 상반되기 때문에, 북한이탈 여성이 남한사회 정착 이전에 비현실적이거나 막연한 진로 자신감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제안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입국 이전 혹은 정착 이전 북한이탈주민이 지

니고 있는 남한사회 정착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 및 자신감이 입국 이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정착 및 경제활동에 대한 이들의 비현실적인 기대나 막연한 자신감이 실제 남한사회 정착 및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여성의 진로장벽 지각수준이 남한거주기간에 따라 M자 곡선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전연숙, 강혜영, 2010). 즉, 경력개발의 변화를 위한 시도 및 재취업 노력 등에 따라 진로장벽이 낮아지고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거주기간에 따른 종단적인 비교가 아닌, 거주기간의 차이를 보이는 횡단적인 집단비교라는 측면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라고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종단적인 연구에서의 재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게다가 북한이탈 남성의 심리적 부적응이 정착 전에 비해 정착 이후 높아지는 현상(김희경, 신현균, 2010; 조영아 등, 2005)이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장벽은 모두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남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착 이후 심리적 부적응의 증가 경향성이 남한 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이나 구직 및 직업 활동의 어려움 등의 경제적 부적응과 관련되는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라는 측면에서, 향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측면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의 경제로 전환되는 과

정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경제적 적응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연구는 추후 통일 이후의 북한주민의 경제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함의를 가져올 것이다. 게다가 심리학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어떠한 직업을 원하고 선택하는지, 실제 직업에 따른 직무만족감이나 직무 효과성은 어떠한지가 탐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진로나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실제로 심리적인 적응이나 심리적 안녕감(well-being)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경제적 만족감이 실제 심리적 만족감으로 이어지는지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특성

#### 가치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부적응은 남북의 가치관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남한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의 가치관 차이와 이질감을 예측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남한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가치관 차이는 주로 사회주의 대 민주주의,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전통주의 대 서구적 문화 등에서 발생하는 차이로 요약 가능하다. 즉,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에 비해 전통적인 가치와 집단주의 경향을 높게 보고한 반면,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개인의 자유나 자기주장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보고하였다(이재창, 김영만, 2005; 정태연, 송관재, 2006).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에 비해 더욱 보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

은 북한이탈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욱 두드러졌다(이재창, 김영만, 2005; 정진경, 2002).

게다가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을 남한 지역 사회 거주 경험이 없는 입국초기 하나원 교육생 집단과 지역사회 거주자 집단 간에 비교한 결과(정태연, 김영만, 2004), 남한사회 유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해 자신의 가치관을 더욱 물질주의적, 편법적, 실리적, 온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온정적이라는 측면을 제외하고, 물질적, 편법적, 이기적 측면은 모두 서구문화의 부정적 특성을 반영하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점차 서구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심리학회에 게재된 연구 중 남북의 가치관 차이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남북의 가치관 차이가 남한주민이 지각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나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다. 특히, 기존의 가치관 연구는 모두 북한이탈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해왔다. 통일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의 아동·청소년 간 가치관 차이나 이질감은 성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남북의 가치관의 차이나 이질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귀인양식

귀인양식의 차이는 문화적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Lee, Hallanhan, & Herzog, 1996; Morris & Peng, 1994). 특히,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귀인양식 차이는 통일이나 북한이탈

주민의 부적응 등의 특정 사건과 문제의 원인을 귀인하거나 그 결과를 추론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귀인양식을 비교한 결과(이재창, 김영만, 2005), 통제 소재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은 모두 실패 혹은 좌절 상황에서 자신에게 원인을 돌리는 ‘내부귀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긍정/부정 시나리오를 구분해봤을 때(채정민, 2006), 남한주민은 긍정적인 결과의 시나리오에서는 ‘내부귀인 경향’을, 부정적인 결과의 시나리오에서는 약한 ‘외부귀인 경향’을 보인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내부귀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통제성 차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은 모두 ‘통제 불가능 귀인 경향’을 높게 보였다(채정민, 2006).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내적으로 귀인하고 통제 불가능 귀인을 할 경우 우울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될 수 있다(Weiner, 1985). 실제 북한이탈주민의 내부귀인 경향은 이들의 소외감의 15.6%를 설명하였으며(이재창, 김영만, 2005), 남한주민은 귀인양식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내부 귀인과 안정 귀인 경향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채정민, 2006).

한편, 귀인의 안정성 및 일관성 차원에서, 남한주민은 유사한 일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안정 귀인 경향’이 높은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유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정 귀인 경향’이 높아 현재의 실패나 좌절이 이 상황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이재창, 김영만, 2005; 채정민, 2006). 또한 그 원인이 전반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특수 상황에만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봤을 때, 북한이탈주민은 특수 상황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반면, 남한주민은 생활의 전반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이재창, 김영만, 2005).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불안정 귀인이나, 특정 원인이 특수상황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귀인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 귀인양식 차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서, 두 집단의 귀인양식 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더불어, 귀인양식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를 탐색해봐야 할 것이다.

#### 대처전략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거주 기간, 탈북 과정, 제 3국 체류 기간, 남한거주 기간 동안 다양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소극적인 대처방식이 전반적인 심리증상을 유의미하게 설명한 점(임지영, 신현균, 김희경, 2010)은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수준에 따른 대처전략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울 수준을 고저로 구분한 결과(신행우, 이종한, 한성열, 허태균, 채정민, 2004), 다양한 상황에서 우울 수준이 낮아 적응적인 북한이탈주민은 우울 수준이 높아 덜 적응적인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소극적인 대처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회피적인 대처보다 접근적인 대처를, 인지 및 정서적 대처보다 행동적인 대처방식을 더욱 선호하였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대처전략은 남한주

민의 대처전략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신행우 등(2004)은 북한이탈주민의 대처전략을 남한주민의 대처전략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와 비교하였으나, 16세부터 73세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 63명(신행우 등, 2004)의 결과를 남한 대학원생 15명(한성열 등, 2001)의 결과와 비교하고 있어, 두 비교집단 간 등가성(equivalence)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강차연(2005)의 연구에서도 재중 탈북여성의 스트레스 대처양식 결과를 기존의 남한 여성 대상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고 있긴 하나, 이 또한 재중 탈북여성의 대처를 남한 여교사, 남한 중년 여성, ADHD 자녀를 둔 남한 여성과 비교하고 있어 비교집단 간 등가성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대처전략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연구 설계 시부터 양 비교집단 간 등가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위의 모든 연구들은 안면타당도가 높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법만 활용하여 대처전략을 살펴봤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방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투사적인 로샤 검사를 활용하여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처를 비교한 연구에서 대응손상지표(Coping Deficit Index: CDI)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을 구분했을 때 자기보고식 검사결과와 다르게 북한이탈 여성은 북한이탈 남성과 남녀 남한주민에 비해 대처자원이 빈약하여(낮은 EA, Adj D < 0)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최윤경, 김종남, 채정민, 2009)이 제안되기 때문에, 이들의 방어성을 고려한 연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 방어

북한에서는 희생이나 헌신을 강조하는 정치 교육과 주체사상을 강조할 뿐 아니라, 정부의 감시 하에 생활하고 주민들 간에도 생활총화 즉, 자아비판과 호상비판(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의 영향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소망 등을 억제하고 억압하거나 적극적으로 현실을 왜곡하여 방어하는 것이 오히려 적응기제로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방어 경향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김종남 등(2008)의 우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방어가 어려운 투사적 검사와는 다르게 자기보고식 질문지에서 긍정왜곡 경향성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활용한 채정민과 한성열(2003)의 연구에서도 성별을 구분했을 때, 북한이탈 남성 대학생이 북한이탈 여성 대학생과 남한 남녀 대학생에 비해 높은 사회적 바람직성과 자기고양 편파 경향성(self-enhancement)을 보였다. 이는 북한의 가부장적 전통사회의 남성중심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북한이탈 남성의 자기지각이 긍정적으로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대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킨 연구이기 때문에, 추후 다양한 연령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의 성차에 따른 긍정적인 자기지각 왜곡 경향성을 재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투사적인 로샤 검사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방어관련 변인들을 비교한 결과(최윤경 등, 2009), 북한이탈 여성은 북한이탈 남성과 남녀 남한주민에 비해 현실지각을 왜곡하는 경향성(높은 X-%)이 높았다. 이러한 부정확한 지각과 현실 왜곡 경향

및 판단착오는 이들의 부적응을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로샤의 반응실패나 반응시간 지연은 억압 경향성을 의미하는데(Schafer, 1954: 최윤경 등, 2009에서 재인용), 북한이탈 여성의 경우 북한이탈 남성과 남녀 남한주민에 비해 반응실패나 반응시간 지연이 높아 대처자원이 부족하고 억압 경향성이 높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또한 방어기제 연구를 살펴보면(김희경, 2010a; 김희경, 2010b), 북한이탈 여성은 모든 성숙 단계 방어기제(예견, 유머, 이타주의, 억제, 승화)를 높게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자아도취 단계(부정, 왜곡), 미성숙한 방어기제(회피), 신경증적 방어기제(합리화)는 일부만 높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비교대상이 없다는 한계 뿐 아니라, 자기보고식 척도만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긍정 왜곡 경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반응 왜곡 및 방어 경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추후 북한이탈주민의 방어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심층면담이나 생리지표 측정, 실험법 등의 다양한 측정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교차검증 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연구에서 부득이하게 자기보고식 검사만 활용할 시에는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방어적 경향성을 함께 측정한 후, 이를 통제하는 분석방식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성격특성

북한이탈 여성의 성격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MMPI-2 프로파일을 군집 분석한 결과(김희경, 2010b; 김희경, 오수성, 2010), 정상 프로파일을 보인 유형이 45.5~50.3%, 피해의식과 의심, 불안, 비현실감 등 정서적 불안정을 보이는 유형이 27~29.2%, 우울과 불안, 사회적 회피와 대인관계 어려움을 보이는 유형이 20.4~27.4%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MMPI-2는 임상적 진단도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격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MMPI-2 결과를 북한이탈 여성의 성격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요인 인성검사Ⅱ를 활용한 결과(손영미 등, 2014)와 비교해보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형이 약 27%로 MMPI-2의 결과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나, 정서적인 안정과 성숙한 자아, 건강한 대인관계를 지니고 있는 유형은 약 35%로 MMPI-2로 측정한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고, 대인관계 어려움과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유형은 약 38%로 MMPI-2로 측정한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즉, 임상적 진단도구가 아닌 인성검사를 활용했을 때, 정상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보수적인 성향과 대인관계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은 임상적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비임상군 중에서도 대인관계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이탈 여성의 심리적 적응(자아정체감과 적응 유연성)의 약 30~50%는 이들의 성격특성에 의해 설명되었다(손영미 등, 2014). 특히, 대담성, 자아강도, 자아통제성이 높은 측면은 북한이탈 여성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적 자원으로 밝혀졌다. 탈북과 제3국 체류기간을 거쳐 남한 입국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이들의 강인하고 적극적인 측면은 강점으로 작용하면서 더욱 강화되었을 수 있다. 반면, 이들의 성격특성 중 낮은 진보성과 높은 불안성은 남한 사회 적응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해진 성격특성 연구는 모두 자기보고식 척도만을 활용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방어성을 고려한 성격특성 연구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성격특성은 북한이탈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여성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재창, 김영만, 2005; 정진경, 2002)을 지닌 북한이탈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격특성 연구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특성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된 연구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성격특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의 관계적 특성

### 가족관계

북한은 통치의 목적 하에 최고통치자인 아버이 수령을 중심으로 대가정을 형성하는 ‘국가 가부장제’와 수령을 포함한 지도층이 인민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가부장적 온정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다(박경숙, 2012; 정영권, 2014). 이러한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권력 관계는 가족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될 수 있으므로, 북한의 이데올로기가 가족관계 및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탈 가족이 함께 남한으로 이주하는 탈북 양상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먼저 탈북

한 북한이탈 여성이 잔류 가족을 남한으로 입국시키는 비율 또한 증가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탈 가족은 북한 거주, 탈북 및 제3국 체류, 남한 거주 기간 등에서 중혼이나 동거로 인해 복잡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개별 특성뿐 아니라 북한이탈 가족맥락 특성과 이에 따른 적응 양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심리학회지에 게재된 북한이탈 가족 연구는 주로 자녀를 둔 북한이탈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북한이탈 여성에게 가족의 존재는 보호요인(조영아, 김연희, 2010)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오히려 탈북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과의 이별 및 재결합 경험,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은 북한이탈 여성의 정신건강에 위험요인(김희경, 2010a; 조영아, 전우택, 2005; 조영아 등, 2005)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남녀를 모두 포함한 연구에서는 가족 동거 상태가 심리증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임지영 등, 2010), 단순한 결혼 유무나 가족의 동거여부 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는 북한이탈 어머니의 자녀양육(김희경, 2012b)과 자녀 재결합 경험(조영아, 2012)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추후 북한이탈 가족연구에서는 어머니 보고에 의한 어머니-자녀 관계뿐 아니라 아버지의 보고에 의한 아버지-자녀 관계, 자녀 보고에 의한 부모-자녀 관계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 아버지-자녀 관계에서 북한이탈 아버지의 가부장적 양육방식과 남한사회가 추구하는 아버지의 양육방식 간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갈등도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문화적응 불일치-스트레스 모델(acculturation gap-distress model)에서는 부모-자녀 간 문화적응 불일치가 가족 갈등 및 자녀의 부적응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하기 때문에(Szapocznik & Kurtines, 1993), 추후 북한이탈 가족연구에서는 가족관계 뿐 아니라, ‘부모-자녀 간 문화적응 불일치’와 ‘부부 간 문화적응 불일치’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자녀 간 또는 부부 간 문화적응 불일치는 가족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Schofield, Parke, Kim, & Coltrane, 2008), 북한이탈 가족의 문화적응 불일치와 가족갈등, 가족관계의 질 등이 포괄적으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 대인관계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 특성이 남한주민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교류 및 화합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심리학회에 게재된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 특성 연구는 단 2건(임지영 등, 2010; 채정민, 이종한, 2004a)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 특성은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그렇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전반적인 심리적 증상수준이 낮았으며(임지영 등, 2010), 개별성(individuality)과 관계성(relatedness)이 모두 높은 북한이탈주민은 그렇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가장 높은 적응 수준을 보였다(채정민, 이종한, 2004a).

지금까지 한국심리학회에 게재된 기존연구 중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대인관계 특성

차이를 살펴보거나, 상호 정서교류 방식이나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다. 특히, 북한 집단주의는 ‘강제적 집단주의’로서 유일지도체제의 존속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개개인의 존재 가치와 특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이현주, 2011), 추후 연구에서는 강제적인 집단주의 문화에서 생활했던 북한이탈주민의 집단 소속감이나 관계형성 특징이 탐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특성이 실제 남한사회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상호 태도

남북한은 현존하는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우리에게 북한은 통일의 동반자이면서도 군사적 대치 상황에 놓인 이중적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성은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과의 관계 특성에서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통일 이후의 남북 주민 간 심리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 남한주민이 지각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수용성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들에 대한 남한주민의 태도 즉, 잘못된 인식이나 왜곡된 정보에 의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 및 수용성 등을 포함한다. 실제로 남한 대학생이 갖고 있는 북한 사람에 대한 지식은 미국인이나 일본인에 대한 지식 보다 더욱 부



죽했는데, 남성 대학생에 비해 여성 대학생의 지식이 더욱 부족했다(김혜숙, 2000).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나 북한 사람에 대한 지식의 증가가 실제 남한주민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감소시키는지, 수용성이나 통일에 긍정적 태도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남한 대학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금미, 2011). 고정관념 및 편견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과 접촉 경험이 없는 남한주민은 접촉 경험이 있는 남한주민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연민의 정서를 높게 지니고(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지각 보다 북한이탈주민을 더욱 부정적(반항적, 비판적, 이기적, 경쟁적 등)으로 지각하였다(이재창, 김영만, 2005).

실제 남한 대학생이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라는 국가와 ‘북한 남성’은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지각한 반면, ‘북한 여성’은 북한의 피지배층, 경제적 궁핍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하였다(김혜숙, 2000; 전우영, 1999; 전우영, 조은경, 2000). 게다가 북한주민을 ‘북한 사람’이라고 명명했을 때,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북한 남성, 피지배적인 북한 여성에 대한 속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전우영, 조은경, 2000), ‘북한 동포’라고 명명했을 때, 북한의 피지배층과 북한 여성의 속성을 지닌 집단으로 지각하였다(전우영, 1999).

위 연구들에서, ‘북한주민’이라는 동일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포’와 ‘북한 사람’

이란 명칭에 따라 서로 다른 고정관념의 속성을 나타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주민을 외집단(북한 사람)이 아닌 내집단(한민족 또는 동포)으로 범주화할 때, 북한주민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과 평가가 증가한다는 유연재와 김혜숙(2000)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북한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내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수용성과 긍정적인 통일의식을 증진시키는지도 연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통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남한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 무접촉 집단은 중간 정도의 신뢰 및 수용을 보였으나, 접촉 집단은 그 유형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즉, 대안학교 교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높은 신뢰 및 수용을 보인 반면, 보호담당 형사는 더욱 부정적인 정서와 낮은 신뢰 및 수용을 보였다. 양계민과 정진경(2005)은 이를 개인의 권위주의 성격과 불확실성 회피경향의 성격 및 인지적 특성에 의한 차이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각 집단이 접촉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예: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이나 성격특성, 접촉양상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전반적인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남한주민이 지각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나 수용성 연구는 대부분 남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고정관념, 편견, 수용성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남한사회 및 남한주민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과 남한주민과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나 남한주민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일 것이다. 북한이나 탈북 후 제3국에서 고단한 생활을 했던 북한이탈주민은 대부분 남한입국 전 남한사회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입국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남한 입국 후 남한사회에서 남한주민이 자신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남한사회에 적극적으로 정착하거나 남한주민과의 접촉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진웅(2004)은 이를 ‘자발적 비적응’ 즉, 자신들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남한사회라는 지배문화에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는 현상으로 명명하면서, 남한주민의 태도와 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태도가 이들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심리학회에 게재된 연구는 남한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나 고정관념을 주로 살펴본 반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나 남한주민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나 태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즉, 남한사회의 생활경험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인식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정태연과 김영만(2004)의 연구가 유일한데, 이들의 남한사회 생활경험은 남한사회와 남한주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보다 부정적인 인식 증가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는 남한사회 무경험 집단(하나원 교육생)과 남한사회 유경험 집단(지역사회 거주자)이라는 횡단적인 집단 비교연구로서 적응이라는 시간에 따른 변화로 해석하는

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종단연구를 통해 남한사회 거주경험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태도변화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전후에 갖고 있던 남한사회나 남한주민에 대한 기대와 태도가 실제 남한사회 정착 및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용 척도 개발 및 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

북한이탈주민용 척도 개발 및 프로그램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심리학회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주민용 척도 타당화 연구는 총 5건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윤여상, 김현아, 한선영, 2007), 탈북자 문화적응척도(김은경, 권정혜, 2009),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 검사(신현균, 김희경, 임지영, 2010), 탈북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김현아, 조영아, 김연희, 2012), 탈북 청소년용 심리상태검사(김희경, 신현균, 2013)가 포함된다. 이 연구들은 모두 자기보고식 검사를 활용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례수가 적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타당화 과정을 거친 5건의 척도 이외에도 간혹 연구자들이 개발한 척도가 사용되고 있는 하나, 이는 신뢰도 및 타당도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렇듯 타당화 된 북한이탈주민용 척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 연구는 남한주민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서양 문화권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주민이나 서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는 북한 사회·문화의 특수성이나 북한이탈주민의 독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남북의 언어차이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응답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한국심리학회에 게재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연구는 모두 4건으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7), 심리적응을 위한 셸프파워 프로그램(강숙정, 이재창, 이장호, 2010), 한국형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K-MBSR) 프로그램(최현옥, 손정락, 2011), PTSD 프로그램(김승현, 최빛내, 2013)이 이에 포함된다.

이 중 3건의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지만, 나머지 1건은 기존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독특성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용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경험적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의 축적은 북한이탈주민용 근거기반(evidence-based)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개발된 북한이탈주민용 프로그램은 심리적 부적응이나 문화적응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내용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문제나 부적응을 감소시키는 기존 프로그램 뿐 아니라,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심리적 이질감을 감소시키고 신뢰와 심리

적 화합을 증진시키는 목적 하에서 남북주민용 관계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남한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이 감정을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표현한다고 평가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의 감정 표현 방식을 ‘이중적’이라고 평가하는데(정향진, 2005), 이러한 차이는 남북한의 문화차이와 대인관계 상호작용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sup>4)</sup>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관계성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 관계향상을 위한 근거기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통일 이후 남북 주민의 심리적 화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의 초석이 될 것이다.

## 논 의

### 과거 연구의 한계

한국심리학회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의 한계는 다음의 5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료수집 및 측정의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방어성과 관련해서 과장된 자기평가 경향이나 긍정왜곡 경향(김종남 등, 2008; 채정민, 한성열, 2003)과 실제적인 이득에 따라서 왜곡의 방향이 긍정 또는 부정으로 달라질

4) 북한에서는 생활총화를 통해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생활화함으로써 상대방을 향한 직설적인 언어사용과 감정 표출을 허용하면서도, 엄격한 사회적 통제와 권력에는 실제 감정을 억제하고 억압해야하는 모순적인 상황 하에 생활했기 때문에 남한주민과 다른 방식의 감정표현 및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수 있다는 지적이 보고됨에도 불구하고, 한국 심리학회에 게재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47건 연구 중 38건(약 80%)의 연구가 질문지법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충분히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우울이나 PTSD와 같은 정신병리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법만 활용하는 것은 진단적 유용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조영아 등(2005)의 3년 추적연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연구는 횡단적인 자료수집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한사회 정착 및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적응 또는 심리적 적응을 살펴보기보다, 횡단적인 집단 차이(예: 하나원 교육생 vs. 지역사회 거주자)를 통해 이를 비교하고 있어 남한 정착 기간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질적인 북한이탈주민 집단을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분석하는 문제이다. 북한에서의 재북 성분과 직업, 출신지역 등 북한에서의 사회인구학적 정보에 따라 북한 내 생활 양상이나 삶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남한에서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몇몇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연령, 남한 거주기간 등 사회인구학적 차이와 연구변인과의 상호작용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김희경, 신현균, 2010; 조영아 등, 2005),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구분하여 통제하거나,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심지어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정보(예: 연령, 제3국 체류기간, 복송 경험, 남한 거주기간 등)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연구도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인구학적 정보별로 구분하여 분석했

다 하더라도 각 집단별 사례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만약 이러한 표집의 한계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인구학적 정보에 의해 구분하지 않고 동질성을 지닌 한 집단으로 분석하게 된다면 연구의 외적타당성이 저해될 뿐 아니라,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의 편향이다. 한국심리학회에 게재된 연구 중 북한이탈 남성 연구는 여성 연구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성비가 3:7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주는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탈 남성은 여성과 다르게 남한 거주기간이 늘어감에 따라 심리적 부적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김희경, 신현균, 2010; 조영아 등, 2005), 가치관(정진경, 2002)이나 자기인식(채정민, 한성열, 2003)에 있어서도 여성과 다른 특성들이 제기된다. 따라서 북한이탈 여성과는 다른 남성 고유의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 부족은 한계로 파악된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을 구분해봤을 때에도, 대부분의 연구가 성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며, 통일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이탈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비교대상의 부재이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한 심리학 연구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뿐 아니라 남한주민과의 비교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심리학회에 게재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47건 연구 중 남한주민을 비교대상으로 함께 살펴본 연구는 11건(약 23%) 뿐이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비교한 11건의 연구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집단의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적절하게 비교·제시하지 않거나, 20대-50

대의 북한이탈주민을 대학생 남한주민과 비교하는 등 비교 집단 간 등가성(equivalence)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이 외에도 남한주민 대상의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한 연구도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집단비교를 위한 표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 집단 간 등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주제의 편향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주제는 주로 심리적 부적응이나 정신병리와 같은 정신건강 위협요인과 부정적인 측면이 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보호요인이나 탄력성을 포함한 긍정심리 연구는 저조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상호태도와 관련해서, 남한주민이 지각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인 반면,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태도 연구는 한 건에 불과하다. 또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 상호 수용성을 다룬 연구도 상당히 미흡하다.

#### 미래 연구 제언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의 방향성은 다음의 5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료수집 및 측정방식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방어성을 고려한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즉, 안면타당도가 높은 자기보고식 검사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연구방법 즉, 질문지법, 투사법, 심층면접법, 실험법, 관찰법, 생리적 측정법 등을 활용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입국 후 적응 추이를 장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종단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통해서 각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집단은 비동질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분석 시 이를 통제하거나 상호작용을 분석해야 한다. 연구마다 고려되어야 할 사회인구학적 정보는 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인구학적 정보는 (1) 성별, 연령, 남한 거주기간, 남한 직업, 남한 교육수준, 사회경제적인 지위, 종교, 가족 동거여부 및 북의 가족 유무 등 ‘남한의 사회인구학적 정보’, (2) 재북 성분과 직업, 재북 교육수준, 재북 출신지역 등 ‘북한의 사회인구학적 정보’, (3) 탈북 년도, 탈북 동기, 탈북 시 가족동반여부, 북송경험 등 ‘탈북과 관련된 정보’, (4) 제 3국 체류 기간이나 상황에 대한 ‘제 3국 체류와 관련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대상의 확장이다. 즉, 여성에게 한정된 연구를 남성에게 확장시켜야 하며, 성인에게 한정된 북한이탈주민 연구를 통일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확장시켜야 한다. 통일부(2014)에 의하면, 2014년 6월에 잠정적으로 보고된 누적입국자 중 북한이탈 청소년(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의해 9세 이상 24세 미만)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22.3%로, 불과 3년 전만해도 전체의 16%이었던 북한이탈 청소년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 청소년 전수조사 중단연구 결과, 과반수 이상인 54.1%의 청소년이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밝히지 않겠다고 보고하여 정체성과 관련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한국교육개발원, 2013),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 비교연

구가 필요하다. 통일 준비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연구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비교한 연구결과는 북한 주민과 남한주민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이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심리적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게다가 남한주민 뿐 아니라 다양한 집단을 비교대상으로 고려하는 것 또한 필요한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응이나 병리적 특성이 실제 남한주민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혹은 이(異)문화권에 적응하는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문화, 이주민, 난민 등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강점 및 긍정심리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해외 난민연구에서는 난민들의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외상이나 역경에 의한 발달 등에 대한 긍정심리연구 결과가 제안되는데(Ai, Tice, Whitsett, Ishisaka, & Chim, 2007; Papadopoulos, 2007).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성장요인, 보호요인, 탄력성 등 긍정적인 심리특성과 강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훼손되지 않은 한국인의 진취적인 기질과 예술성이 보존되어 있으며 한국적인 정서의 원형이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강숙정, 이재창, 이장호, 2010),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응 특성에 한정된 연구에서 벗어나 이들의 심리적인 고유성이나 강점도 함께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 결 론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행해진 심리학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주민과 함께 통일을 준비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남한사회에서 적응을 해야 하는 소수집단으로 간주해왔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학 연구는 통일 준비의 일환으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화합이나 문화적응 과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나 부정적응적인 특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통일 준비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논의되는 흐름 속에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먼저 온 통일로 인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향후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주민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이뤄나가야 할 동반자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전환을 통해, 미래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는 남북한의 심리적 화합과 민족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 준비를 위한 심리학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행해진 심리학 연구를 종합적·비판적으로 개관하였으며,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리학 연구의 범위를 한국심리학회지로 한정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한 연구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심리학회지 이외의 학술지에 게재된 심리학적 함의를 지닌 다양한 연구들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통일 준비를 위해 심리학 개관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남북한의 통일 준비를 위한 연구에서 학제 간 융합연구는 필수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심리학 연구의 차별

성이 강조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 영역과의 협업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심리학 이외의 국내 사회과학분야에서 이루어졌던 통일 준비와 관련된 연구를 심리학적 시각에서 종합적·비판적으로 개관하여, 통일 준비에 있어서 심리학 연구의 차별성을 기술하고 심리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체제나 이데올로기가 북한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심리학 연구의 차별성을 논의해본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나 수령숭배(개인숭배) 전략, 또는 주체사상 등이 이들의 암묵적인 기억이나 사고, 정서, 행동 등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구는 타학문과 차별화된 심리학 연구의 입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 외에도 과거 분단국의 통일 사례(예: 독일, 베트남, 예멘 등)에서, 통일 준비 및 통일 교육,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발생하는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개관하여 국내 상황에 적용하여 소개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하게 이(異)문화권에서 적응해야하는 난민, 다문화, 이주민, 유학생 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한 후 남북 상황에 적합하게 변형시켜 함의를 제공하는 개관연구는 통일을 준비하는 심리학 연구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강숙정, 이재창, 이장호 (2010). 새터민 심리적응을 위한 셀프파워 프로그램의 효과. 한

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73-706.

강차연 (2005). 재중 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61-80.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김금미 (2011). 대학생의 탈북자에 대한 수용적 행동의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3), 1-16.

김은경, 권정혜 (2009). 탈북자 문화적응척도 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3), 761-781.

김승현, 최빛내 (201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PTSD 프로그램 효과 검증: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4), 533-548.

김종남, 최윤경, 채정민 (2008). CES-D와 로샤 검사를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감.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2), 41-61.

김현아, 조영아, 김연희 (2012).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척도 개발을 위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1), 25-46.

김현옥, 추상엽, 임성문 (2014). 유학생의 문화 적응전략, 민족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 1-18.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2), 115-133.

김희경 (2010a). 탈북 여성의 방어기제와 정신

- 건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155-173.
- 김희경 (2010b). 탈북 여성의 MMPI-2 프로파일 유형과 성격 특성에 따른 방어기제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 311-329.
- 김희경 (2012a).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 증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4), 1003-1022.
- 김희경 (2012b). 탈북 여성과 남한 여성의 우울감, 양육 죄책감 및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4), 535-558.
- 김희경, 신현균 (2010). 지역사회 정착 전후 북한이탈주민의 성 및 연령별 심리 증상.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707-724.
- 김희경, 신현균 (2013). 탈북 청소년용 심리상태검사 개발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3), 521-541.
- 김희경, 오수성 (2010). 탈북 여성의 MMPI-2 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1-20.
- 김희경, 전진용 (2010). 탈북 여성에서 MMPI-2의 진단적 유용성: 정신과 내원군과 정상 대조군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335-353.
- 손영미, 강숙정, 박정열 (2014). 여성 새터민의 성격유형에 따른 심리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 19-44.
- 신행우, 이종한, 한성열, 허태균, 채정민 (2004). 이(異)문화권내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양식: 북한이탈주민 남한문화 적응의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1), 147-163.
- 신현균, 김희경, 임지영 (2010).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 개발 및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3), 777-798.
-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97-115.
- 유연재, 김혜숙 (2000). ‘한집단’ 범주의 점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91-112.
- 윤여상, 한선영, 김현아 (2007).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93-718.
- 이재창, 김영만 (2005). 탈북자들의 심리적 특성이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탈북자들과 남한주민들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3), 41-66.
- 이현주 (2011). 북한집단주의 정치사회화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5(2), 291-325.
- 임지영, 신현균, 김희경 (2010).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스트레스, 지각된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과 전반적인 심리증상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631-638.
- 장문선, 손의정 (2014). 북한이탈주민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심리적 문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973-999.
- 전연숙, 강혜영 (2009). 탈북여성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남한여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409-425.
- 전연숙, 강혜영 (2010). 탈북여성의 진로장벽 지각: 연령별, 학력별, 남한거주기간별 차



- 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69-487.
- 전우영 (1999). 남, 북한 고정관념에 대한 탐색: 성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19-232.
- 전우영, 조은경 (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67-184.
- 정진경 (2002).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163-177.
- 정진웅 (2004). 적응을 넘어서: 탈북 청소년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열린교육연구, 12(2), 179-194.
- 정태연, 김영만 (2004). 남한사회에서의 생활경험이 탈북자에게 미치는 영향: 남한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3), 61-81.
- 정태연, 송관재 (2006). 한국인의 가치구조와 행동판단에서의 이중성: 대학생, 성인 및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3), 49-68.
- 정향진 (2005).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1(1), 81-111.
- 조영아 (2012).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197-222.
- 조영아, 김연희 (2010). 초기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509-527.
- 조영아, 김연희, 유시은 (2009). 남한 내 7년 이상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329-348.
- 조영아, 전우택 (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17-35.
-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 채정민 (2006). 북한이탈주민의 귀인 양식: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3), 1-22.
- 채정민, 김종남 (2004).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1), 41-63.
- 채정민, 김종남 (2008). 사람중심의 통일교육 모델의 제안: 통일 단계에 따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519-544.
- 채정민, 이종한 (2004a).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성-관계성이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793-814.
- 채정민, 이종한 (2004b).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2), 79-101.
- 채정민, 한성열 (2003). 북한이탈주민의 자기고양 편파가 남한 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2), 101-126.
- 최빛내, 김희경 (2011). 탈북 여성의 외상 경험과 성격병리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95-212.
- 최윤경, 김종남, 채정민 (2009). 로샤 검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대처와 방어. 한국

- 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4), 507-528.
- 최현옥, 손정락 (2011). 한국형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K-MBSR) 프로그램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경험회피 및 수치심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3), 469-482.
- 통일부 (2014).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 통일부 (2015). 통일부 홈페이지 통계자료. <http://www.unikorea.go.kr/>
- 통일부 하나의원 (2013). 하나의원 진료통계.
- 한국교육개발원 (2013).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 연구.
-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2), 33-54.
-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스트레스 상황 특성에 따른 적응적인 대처양식: 대처양식의 유연성 제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23-143.
- Ai, A. L., Tice, T. N., Whitsett, D. D., Ishisaka, T., & Chim, M. (2007). Posttraumatic symptoms and growth of Kosovar war refugees: The influence of hope and cognitive coping.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1), 55-65.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5-34.
- Berry, J. W. (Ed.).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rhis, R. V., & Dayan, J. (2004). Acculturation orientations towards Israeli Arabs and Jewish immigrants in Israel.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9(2), 118-131.
- Gupta, A., Leong, F., & Valentine, J. C. (2013). A meta analytic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among Asian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3(2-3), 372.
- Kunst, J. R., & Sam, D. L. (2013).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acculturation expectations and Muslim minority youth's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7(4), 477-490.
- Lee, F., Hallahan, M., & Herzog, T. (1996). Explaining real-life events: How culture and domain shape attributions.
- Major, B., & O'Brien, L. T. (2005).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 Rev. Psychol.*, 56, 393-421.
- Montreuil, A., & Bourhis, R. Y. (2001). Majority acculturation orientations toward "valued" and "devalued" immigra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2(6), 698-719.
-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949.
- Papadopoulos, R. K. (2007). Refugees, trauma and adversity-activated development. *European Journal of Psychotherapy and Counselling*, 9(3), 301-312.
- Pfafferott, I., & Brown, R. (2006). Acculturation preferences of majority and minority adolescents in Germany in the context of society and famil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6), 703-717.

- Safdar, S., Dupuis, D. R., Lewis, R. J., El-Geledi, S., & Bourhis, R. Y. (2008). Social axioms and acculturation orientations of English Canadians toward British and Arab Muslim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2(5), 415-426.
- Schofield, T. J., Parke, R. D., Kim, Y., & Coltrane, S. (2008). Bridging the acculturation gap: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s a moderator in Mexican American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4(4), 1190.
- Szapocznik, J., & Kurtines, W. M. (1993). Family psychology and cultural diversity: Opportunities for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48(4), 400.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4), 548
- 1차원고접수 : 2015. 03. 30.  
수정원고접수 : 2015. 06. 05.  
최종게재결정 : 2015. 06. 06.

**Future direction on psychological research to  
prepare for Korea reunification:  
Focusing on studies of North Korean refugees**

Na Han

Seung-yeon Le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conducted to comprehensively overview and evaluate psychological research on North Korean refugees for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This study analyzes 56 selected psychological studies on North Korean refugees that were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from 1999 to 2014. This study consists the following sections: First, this study discusses the importance of this study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research on North Korean refugees in addition to a discussion on the research trends on North Korean refugees in relation to the patterns of their domestic entry into South Korea. Second, this study addresses different aspects of North Korean refugees' adaptation to their new life in South Korea, such as accultur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psychopathology, and economic adaptation. Furthermore, it examines various factors such 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lational factors, and mutual attitudes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refugee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tudies and proposes future directions of psychological research based on the overall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prepare for effectiv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Key words* : North Korean refugees, reunification of Korea